

구례군, 지리산도로 군도 편입... 사고예방·관광사업 추진

861호선 지방도에서 폐지 관리 주체 구례군으로 이관 사고예방 시설 보완 등 추진

사고로 악명이 높았던 전남 구례 '지리산도로'의 관리 주체를 구례군으로 이관해 사고 예방과 관광사업 연계를 추진한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구례군 광의면 천은사~도계 간 19.8km 구간의 지리산 도로를 지방도 제861호선에서 폐지하고 군도(郡道)로 편입한다.

또 국도 19호선을 경유해 곡성군 고달까지 25.2km 구간은 지방도 제861호선에 포함시킨다.

이번 노선 변경은 국토교통부 승인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07년부터 구례군이 요구해 13년 만에 해결됐다.



구례군 지리산 피아골. /뉴스

구례군도로 편입된 지리산도로는 급경사가 심해 잦은 교통사고와 동절기 관리 문제 등이 지속돼 왔다. 하지만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데다 전남도가 관리하는 지방도로에 포함돼 있어 사고 대응이나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번 노선 변경에 따라 지리산도로

의 공식 관리청은 구례군이 되며, 도로 표지판과 도로시설물 등은 전남도에서 일괄 정비한 후 구례군으로 이관한다.

구례군은 앞으로 지리산도로에 대한 사고예방 시설 등을 보완하고 관광사업과 연계해 운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지방도 861호선

에 포함된 남원 구간 16.8km에 대해 자체 노선번호 부여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지방도 861호선으로 새로 지정된 25.2km 중 구례 산동부터 곡성 고달간 14.2km는 지난 2008년 전남도에서 개발촉진지구사업을 시행해 구례군, 곡성군에 이관했던 구간으로 그동안 유지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번에 지방도로 지정했다.

지방도가 폐지되기 위해서는 도로법에 따라 노선이 통과한 지역의 관계 기관과 협의의 거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동안 전북도는 줄곧 반대 의견을 내놨다.

이로 인해 전남도는 단순 폐지가 아닌 노선 변경을 대안으로 추진해 구례와 곡성의 숙원을 함께 해결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정광호 삼육대 교수 경북도 공공건축가 위촉

삼육대는 정광호 건축학과 교수(사진)가 경상북도 초대 공공건축가로 위촉됐다고 8일 밝혔다.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물 디자인 품질 향상과 도시공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우수한 민간건축가를 공공건축 업무에 참여토록 하는 제도다.

정 교수는 오는 2022년 10월까지 2년간 경상북도의 주요 공공건축과 공간환경사업에 대한 기획·설계업무 단계부터 사업완료까지 자문, 기술지원 등 역할을 맡게 된다.

/이현진 기자 lhj@



동북아 문화관광 국제세미나 /경북도

'2020 동북아 문화관광 세미나' 성료

경북도·안동시 후원, 관광 활성화 논의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글로벌 관광시장의 회복방안과 앞으로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2020 동북아 문화관광 국제세미나' (이하 국제세미나)가 6일부터 8일까지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경북도와 안동시의 후원으로 열린 국제세미나는 한·중·일과 러시아, 몽골의 관광학 교수, 문화예술인, 언론인 등이 모여 결성한 동북아관광학회 주관하고 관련 6개 단체(한국농어촌관광학회, 동아시아고대학회, 한국복식산업학회, 한국물학회, 영남문화예술인협회, 대구광역시경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국제세미나는 2004년 중국 다롄에서

열린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15회째를 맞고 있으며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5개국을 순회하며 국제적 학술대회 개최를 해왔다.

8일까지 3일 동안 열린 국제세미나에서 학술포럼, 문학세미나, 농어촌관광대회, 국제대학생대회 등 10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코로나 이후 경북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관광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국제세미나를 통해 코로나19 현실에 맞춰 유튜브를 비롯한 SNS를 통해 국내·외의 홍보효과 확대와 더불어 위기상황의 관광산업을 검토하는 등 국제적 수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제관광 선진국 경북'의 이미지 확대에 큰 역할을 했다. /경북=문봉현 기자

영양자작나무숲 관광화 탄력

경북도 올해만 3개 공모사업 선정 산림자원 활용 관광기반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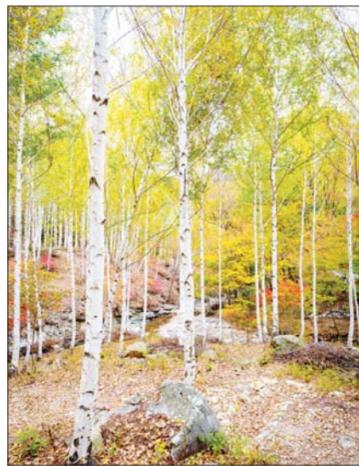
영양자작나무숲 관광자원화 사업이 산림청에서 '공모한 국유림 활용 산촌활성화 사업'과 '유휴산림자원 자산화 사업'에 중복 선정돼 웰빙 명품 산림관광지 조성에 탄력을 받고 있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영양자작나무숲 관광자원화 사업은 올해에만 중앙정부의 3개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2억여원을 확보했다.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20억원), 국유림 활용 산촌활성화 사업(10억원), 유휴산림자원 자산화 사업(2억2500만원) 등이다.

이 가운데 '국유림 활용 산촌활성화 사업'은 낙후된 산촌지역 주민들이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반시설, 체험·소득·판매·홍보 지원 시설, 임산물재배 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휴 산림자원 자산화 사업'은 국공유림에 산재한 유휴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산촌주민과 귀산촌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



영양자작나무숲

영양군 수비면 죽과리의 자작나무숲은 1993년에 30ha 규모의 국유림에 조성된 수령 30년생의 국내 최대 자작나무숲 군락지다.

경북도와 영양군은 영양자작나무숲을 관광자원화하고자 지난해 11월 남부지방산림청과 '영양 자작나무숲 권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진입도로인 군도 8호선과 임도 확포장, 숲길(2km) 조성 등 기반사업을 시행해 왔다.

/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

경북도, '2020 균형발전박람회' 참가

'함께 경북' 슬로건 통해 미래상 제시

경상북도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비대면으로 열리는 '2020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 참가해 온라인 홍보관을 구성·운영한다.

균형발전박람회는 2004년부터 국가 균형발전 비전과 지역발전 정책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으로, 균형발전위원회와 17개 시·도, 산업부 등 14개 관계부처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박람회 행사다.

올해 박람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온라

인으로 개최된다.

경북도 온라인 전시관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대구경북 행정통합, 경북의 스마트팜 기술+농업 기술이 결합된 바이오산업 등 모두 3개의 존(zone)으로 구성됐다.

'함께 경북!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라는 전시 슬로건으로 ▲대구경북 새로운 하늘길 개척으로 글로벌 도시로 전진,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한 지역발전의 새로운 도약, ▲경북 그린바이오 산업을 기반으로 발전하는 경북 미래상을 제시한다. /경북=문봉현 기자

광주 광산구-장성군, 서원교류 협약 체결

서원 콘텐츠·관광산업 발굴 등 협력

광주 광산구와 전남 장성군은 '전통문화·관광산업 교류 및 상호발전을 위한 서원 교류 협약'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광산구와 장성군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서원인 월봉서원과 필암서원이 각각 자리한다.

두 지자체는 서원 콘텐츠와 학술 교류, 전통문화 관광산업 발굴, 관광객 유치, 지식 공유,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

광산의 월봉서원은 16세기 조선의 대표 성리학자인 고봉 기대승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고자 세워진 조선 중기의 서원이다. 186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문을 닫았다가 1941년 방월당을 새로 짓고 서원의 모습을 다시 갖췄다.

장성의 필암서원은 하서 김인후의 도학을 추모하고자 선조 23년인 1590년 창건해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온전히 유지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오른 한국의 9개 서원 가운데 하나이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

경북도 "경북 여행지 한눈에 보세요"

경북도가 가을에 경북의 가볼만한 여행지 45선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책자는 트레킹 명소, 기차여행, 밤, 풍경, 치유, 눈, 바다 등 10가지 주제로 이뤄졌다.

주제별로 주변 관광지 2곳을 소개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맛집, 주변 여행지들을 함께 표시해 여행객들이 찾아갈 때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경북=문봉현 기자

